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모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성탄메시지

오소서 평강의 왕이시여!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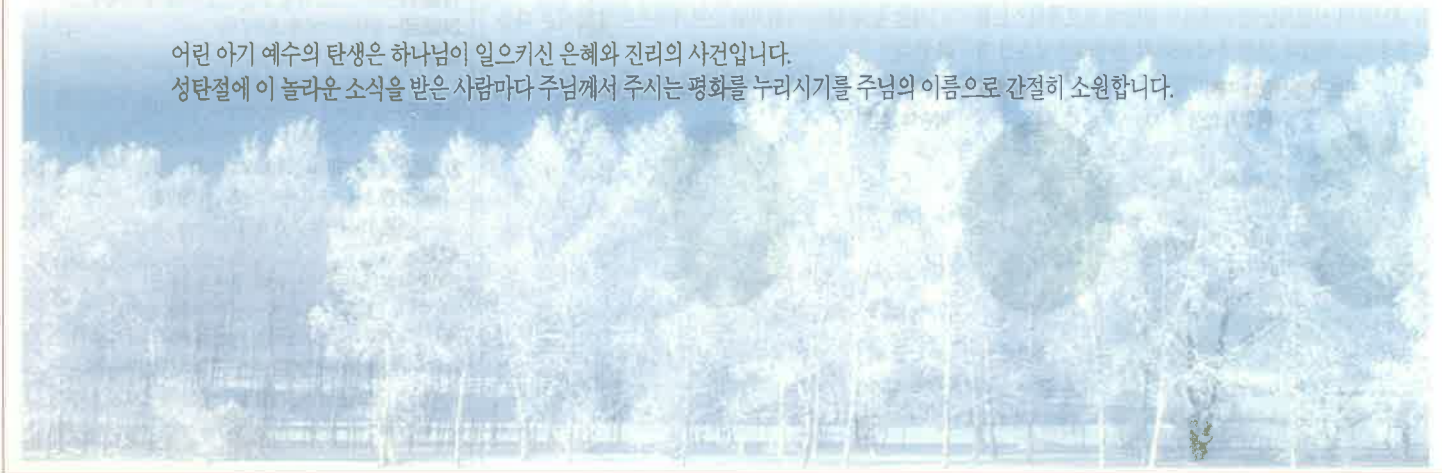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성탄절이 되면 으레 부르는 찬송이지만 이 찬송은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희망과 환희를 가져다 줍니다. 그 날은 숨겨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 세상에 나타난 날이라 즐겁다 하겠지만 실은 무서운 날이었습니다. 어둠으로 인해 온갖 불안, 근심, 회의, 고독, 고통에 짓눌렸던 백성에게 갑자기 햇빛보다 더 찬란한 빛이 비쳐왔기 때문입니다. 자기 존재를 위협하는 캄캄한 밤의 상황도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났을 때 심판이 다가옴을 알고 죄책감에 빠진 사람들은 더욱 무서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무서워 말라"고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친구로 열쇠와 푸대접을 받으시며 존재의 심연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잃어버린 자들과 억눌림을 받아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평화와 소망으로 찾아 주십니다. 천한 자, 괴로워 하는 자, 무거운 짐진 자,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한 자들을 찾아 그 지위를 높여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이 평화는 전쟁과 대비되는 의미의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평화가 아니고 결코 아름다운 꿈의 평화도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영원하고 절대적인 평화입니다. 하늘시민이 누릴 거룩한 평화이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화입니다. 또한 약속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차원의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혼미한 이 세상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보여진 사랑의 기적을 통해서 만민의 심연에 묻힌 질문들이 풀려질 것입니다.

어린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은혜와 진리의 사건입니다. 성탄절에 이 놀라운 소식을 받은 사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쁘다 구주오셨네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성탄절

25일(토) 오전 11시-성탄감사예배

24일(금) 저녁 7시-성탄전야 축하예배

우리 교회는 금년 성탄절을 온 성도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한다.

24일(금) 성탄전야는 저녁 7시 성도들이 본당에 모여 성탄 전야 축하예배를 드리고 교회학교 학생들이 준비하여 온 찬양과 울동으로 축하 행사를 갖게 된다.

또한 이날에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산타 할아버지도 우리 교회에 찾아와 함께 성탄을 축하할 예정

이다. 25일(토) 성탄절에는 새벽 5시에 성탄절 새벽예배를 드리게 되고 오전 11시 성탄 감사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아기 예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이 시간에는 성탄 감사헌금을 드리게 된다.

이처럼 다양하게 감사함으로 준비되는 2004년 성탄절을 모든 성도들이 다함께 기쁘게 맞이하시도록 기도한다.

2005년 교회학교 교사 및 섬김위원 2차 임명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교회는 일정에 따라 오늘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교회학교 교사 및 섬김 위원들을 임명한다. 오늘 임명받는 모든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받아 덕을 세우도록 하며, 교회학교 교사들은 맡기신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기도한다. 오늘 임명받은 교회학교 교사들과 섬김 위원들의 명단은 주보 간지로 삽입되었다.

세계선교의 첫 걸음 - 70인전도대

2005년도 70인 전도대를 이끌어갈 대원명단이 오늘 발표된다. 대원임명기준은 그동안 서울교회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전도학교"를 이수한 졸업생 전원(11기까지 256명)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서울교회는 2010년까지 선교사 100명, 교회학교학생 1만명을 목표로 삼고 기도하고 있으며 성도들의 열심 있는 전도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교회에서는 각 남녀전도회의 활성화와 특히 전도결실을 많이 맺고 있는 70인전도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70인 전도대에서는 자체적으로 1년에서 10년까지 연속적으로 전도활동을 한 대원에게 각 활동연도별로 메달, 감사패 등을 수여하여 노고를 위로할 계획이며 특히 10년 이상 활동한 대원에게는 "전도명예의 전당" (가칭)에 "Foot Print"를 제작하여 영구게시하며 또한 성지순례포상을 계획하고 있다. 모든 성도들은 "전도학교"수강 및 전도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바란다

홍보 위원회 각층별 게시판 일제정리 예정

서울교회 홍보위원회(위원장: 전기섭장로)에서는 각 층마다 있는 교회게시판의 게시물 중 교회와 관련이 없는 불요불급한 홍보물을 정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각 부서 위원회에서 게시가 필요한 홍보물은 홍

보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부착할 수 있다. 부착을 원하는 홍보물을 사무국에 맡겨두면 홍보위원들이 탈부착 여부를 심의해 게시한다.

가브리엘·베들레헴 찬양대 지휘자 영어예배부 찬양대 오르가니스트 임명

교회는 지휘자가 개인의 사정으로 사임하여 아직 임명 받지 못한 가브리엘 찬양대와 베들레헴 찬양대의 지휘자와 내년부터 신설되는 영어예배부 찬양대 오르가니스트를 임명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교회 각 찬양대는 교유의 명

칭을 갖고 있는 만큼 영어예배부 찬양대도 명칭을 부여하기로 하여 '예루살렘 찬양대'로 하였다. 새로 오게 되는 지휘자와 오르가니스트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가브리엘 찬양대 지휘 류형기 선생



-연세대 종교음악과 졸업
-이태리 F.A. Bonporti 국립음대 졸업
-로마 예술아카데미 전문 연주자 과정 졸업

-페루자아 프레스코발디 합창지휘과 수료
-R. Eichenberger 지휘 마스터 클래스 디플로마
-이태리 국립방송국(로마 RAI) 오케라 합창단원
-현 연세대, 단국대 강사

베들레헴 찬양대 지휘 박승혁 선생



-서울대 성악과 졸업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오케라 전공 졸업
-트로싱엔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영어예배부 오르가니스트 이순재 선생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오르간 전공) 졸업
-한국 예술종합학교 입학(3월)
-캐나다 토론토대 삼일교회, 부산 부민교회 오르가니스트

2005년 교회 표어 확정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우리교회는 내년도 교회 표어를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으로 정하였다.

초등부 달란트 축제 열기로

2004년도를 마감하면서 초등부는 새친구 초청잔치와 함께, 그동안 초등부 어린이들이 교회생활하며 모아 두었던 달란트를 쓸 수 있는 달란트 행사를 오늘 10시-11시 한티공원에서 개최한다.

육군사관학교 교회와 선교후원 결연하기로 하다

2005년 3월 19일(토)에 결연키로

우리교회는 육군사관학교 교회와 선교후원 결연식을 맺기로 하였다. 우리교회는 앞으로 육군사관학교 교회와 협력하여 비전2020운동을 진행하게 되며 육군사관학교 진중합동 세례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를 주관하게 된다.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

12월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12월 중에 성경통독을 한 성도들에게 시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성경을 통독한 이들에게는 교회로고가 새겨진 머그컵 세트를 드리고 있다.

12월 성경통독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3독: 조명녀 권사(9교구) 전기섭 장로(12교구)

2독: 한성옥 권사(7교구) 이완형 장로(10교구)

1독: 이웅선 장로(2교구) 이윤영 권사(5교구)

성준경 장로(5교구) 장낙희 집사(5교구)

박두호 장로(7교구) 정동학 집사(8교구)

안분선 권사(9교구) 박연순 권사(10교구)

김선미 권사(11교구) 전배호 권사(11교구)

이영조 집사(11교구) 이영자 권사(11교구)

임상현 장로(12교구) 서희숙 집사(12교구)

김혜란 집사(13교구) 박순복 집사(13교구)

대학부 1독: 서명철 목사 김예환 권사 손태기 집사

정동호 집사 이은옥 권사 안재희 광정임 오현경

신범석 한대석 김예미 박수진 임만웅 강혜주

이윤혜 이조은 이상36명

연말연시 행사계획표

<12월>

19일(주)-교사, 섬김위원 임명식, 성탄축하음악예배

24일(금)-성탄전야예배(오후7시)

25일(토)-성탄새벽예배(5시)

성탄감사예배(11시)

26일(주)-졸업감사, 은퇴식, 안식년, 전도시상, 주간성경공부 시상, 특별제직회(찬양예배 후)

27일(월)-28일(화)-목회자 새해준비 수련회

31일(금) 밤 7시-순결서약식 오리엔테이션

밤 10시-각 부 촌극대회

<1월>

2005년 1월 1일(토)-0시 예배(신년감사헌금)

2일(주)-성찬식, 신년감사예배, 순결서약식, 공동의회(찬양예배 후)

3일(월)-8일(토)-청지기수련회(새벽5시)

7일(금)-신년 다락방 모임 시작

1월-2월-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수련회

Merry Christmas

Merry

이윤재(대학부)



제가 있는 이 곳 미국은 12월이 채 되기도 전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들뜨기 시작합니다. 집집마다 트리를 장식하고 현관이며 정원에 장식을 걸으며 색전구로 밤새 불을 밝히곤 합니다. 그 뿐 아니라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도 얼마나 요란하게 장식을 하는지 그것을 보며 교회의 절기를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주일도 지키지 않는다고 걱정을 합니다만 미국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스스로없이 말합니다. 어쨌건 아직까지도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청교도정신이며 이들의 문화는 그 자체가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의 New Town Square에서는 12월 첫번 주일 저녁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그 날도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몰려나와 아이들처럼 환호하며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해마다 저의 학교 내, 제가 속해 있

는 양상블이 이 점등식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올해도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라는 캐롤을 불렀습니다. 캐롤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이즈음 저희 학교도 성탄절에 전 학년이 모여 드릴 성탄예배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는 특히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거리로 나가 밤을 지새우는 반면 미국은 홀어진 가족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120년의 역사가 지났으니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념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장 생각나는 것은 가족과 서울교회입니다. 지금쯤 교회는 성탄절 준비로 한창일 텐데... 새벽송 하던 일도 생각나고, 초등부 때 연극하던 생각도 납니다. 한 해를 평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러한 서울교회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Merry Christmas! -미국에서-

이인결(청년부)

12월이 가까워 오면서 이 곳, 이태리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왔음을 느끼게 하는 장식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TV의 광고나 시내의 가게들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대목을 의식한 상업적인 분위기는 조성되어 있었지만 그런 종류와는 차원이 또 다른 축제 분위기가 시에 의해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를 먼저 배려하는 이 곳 사람들의 성향을 나타내듯 일반 대중과 시민들을 위한 공공장소와 거리거리가 각양각색의 조명으로 해질 무렵부터 새벽까지 환히 장식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시의 중심가 광장에는 크리스마스를 위한 아주 커다란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더불어 매 주말에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영화 상영이라든지 음악회, 바자회, 어린이를 위한 공연, 크리스마스를 위한 테이블 데코레이션, 상차림 전시, 각 세



대를 대상으로 지고 축소되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빠진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눈과 귀, 혹은 입으로 느끼는 감각적인 것은 한국에서 등과 같은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한 각종의 대체로 운 행사가 시내에서 펼쳐 집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본래의 의미와 되새겨야 할 가치가 가려

지고 축소되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빠진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눈과 귀, 혹은 입으로 느끼는 감각적인 것은 한국에서 보다 더 좋은 것으로 충족될 수는 있을 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저의 마음과 신앙이 그에 맞게 채워지지 못할 것임이 벌써부터 느껴집니다. 교회의 친구들과 크리스마스를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서로 기쁨의 인사를 나누며 가족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선물교환을 하며 식사를 하는 지금까지의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저에게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새삼 되새기며 그간 서울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일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이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기를...

Felice Natale~!! Buone Feste~!!!

-이태리에서-

임종현(대학부)



안녕하세요, 중국 항주에서 유학중인 대학부 임종현입니다.

이곳에서 벌써 2번째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됐지만 성탄절의 감사와 기쁨을 한번도 느껴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곳이었으면 최

소한 길거리에서 들리는 캐롤과, 거리를 장식하고 있는 예쁜 소형전구들, 그리고 크고 작은 트리들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얼마전 까지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느낀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하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뜨거운 성탄절을 눈물로 보내고 있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형마트나 가야 오래된 캐롤이나마 들을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기성세대들은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보내며 달력조차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로 미루어 우리 크리스천들이 국제적으로 막

중한 복음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중국에 발을 붙이고 있는 한 저도 복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전하겠습니다. 진정 중국인들이 예수님을 아는 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보기를 원합니다.

서울교회 여러분, 중국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곳 중국 땅을 위해...

祝聖誕節快樂!!

-중국에서-

y Christmas

최유현(청년부)



메리 크리스마스!!
이곳 프랑스에서도 우리 서울교회와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 파리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천들

국의 크리스천들이 기도로 여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프랑스이지만..이제는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크리스마스를 맞아 파리한인교회가 연합으로 하는 사랑의 소리 선교단은 지난주 토요일 파리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의 한 양로원을 방문하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불어로 된 성탄찬양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받았던 복음을 역수출(?)하게 됨이 놀랍고, 귀한 체험이었습니다!!

이곳 한인교회에서도 한국처럼 크리스마스 음악예배 연습이 한창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서울교회와 가족, 친구들이 그 귀위집은 고국을 떠난 모든 이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서울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프랑스에서-

은 대단합니다!!

여기서는 교회 소유의 건물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프랑스 교회를 주일마다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의 한인교회들은 연합으로 새벽기도를 드립니다. 파리의 새벽 역시 대한민국

최인애(고등부)



전 어렸을 때 정말 산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25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항상 선물이 잔뜩 있었고 교회에서도 산타장로님들께서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어느 해 성탄절 아침 눈을 떠보니 한가득 있을 줄 알았던 선물은 없었습니다. 실망한 저에게 교회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지, 인애는 산타가 안 와서 속상하지? 그렇지만 산타가 오는 것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란다. 세상의 캐롤보다 세상 아이들이 좋아

하는 산타보다 예수님이 오신 길 더 기뻐할 바란다. 아기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너를 위한 것이니까
-12월 25일 선생님이-

전 카드를 읽고 하나만 생각했었습니다. 산타는 없는 것이라구요. 하지만 주셨던 카드의 내용이 차츰 이해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산타가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고, 아기예수님이 오신 기쁜 날입니다. 세상에서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친구들 혹은 연인과 함께 곳곳을 돌아다니며 즐겁게 웃지만 아기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산타만 찾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노는 날, 산타가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아기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길 축하하는 날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 아니고, 아기예수님이 오신 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는 2004년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에서-

나의 하나님

엄마! 하나님이 날 안아주셨어!

유승혜성도(1교구)



우리집 거실 피아노 위에는 두 개의 모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일 경찰어머니 봉사활동 했을 때의 모자이고 또 하나는 가을운동회날 꼭두각시 무용할 때 쓰려던 딸의 쪽두리입니다.

올 가을, 딸 홍라혜가 초등학교 입학 후 처음 맞는 가을운동회 예행연습을 하던 날

이었습니다. 학부모 일일 경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학교를 향해 가는데 학교 앞 횡단보도 앞에 경찰차와 119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사람들에게로 다가가는데 갑자기 내 발앞에 한 아이가 "엄마, 라혜가 목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발을 동동구르며 빠르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목 주위로 피를 흘린 채 어느 여자 손에 안기어 있는 아이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내 딸 라혜라니..."

그 후로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딸은 검사 결과 엉덩이 부분의 상처와 어깨 부분의 화상 및 작은 상처뿐 괜찮다는 의사의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물론 의사는 3일 동안 CT 결과를 기다려 보라고는 했지만... 저는 연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만 드렸습니다.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네 바퀴 속에 작은 우리 라혜의 몸이 들어가서 앞번호판에 목이 걸린 채 얼굴과 두 팔만 내흔들리면서 10여 미터를 밀려 갔다는 데 살아 있다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안 들고 가도 되는 운동회 총연습 날인데도 라혜는 가방 속에 무언가를 가득 넣고 가더니 그 가방이 우리 라혜의 머리 밑 베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 그 가방은 뚫어지고 찢어지고... 마치 라혜의 살이 찢기고 뜯긴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내가 길을 건너는데 어디선가 차가 날 넘어지게 해서 내가 차 밑에 깔려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날 포옹이 꼭 안아주셨어!" 라는 딸 라혜의 말을 듣고 전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안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밤이면 아파서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하면서도 주일 아침에 찬양연습에 간다면서 7시부터 법석을 떨었습니다.

뜨겁지 못했던 내 마음이 불안하여 항상 쫓기는 것 같은 심정이었고 언젠가 나도 봉사에 참여해야지 하면서도 지금까지 미뤄왔지만 이제 그 작은 소망을 앞당겨 찬양대 양성반을 수료하고 가브리엘 찬양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전심으로 교회 생활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무엇보다 남편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기를 주 예수님께 기도 드립니다.



광야의 소리

성탄절의 참의미

예수님을 찾습니다!

- 찾은 분: 예수님
- 나이: 알 수 없음.
태초(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기에 때문임
- 나신 때: 이천여년 전
- 나신 곳: 유대 베들레헴
- 특징: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위에서 돌아가셨으며 삼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도해 주시는 분이시며 마지막 날에 심판자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찾으시는 분이냐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교회로 오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노환장 장로(기획위원장)

이와 같은 안내문을 화려한 성탄 장식물들이 넘쳐나는 거리에, 백화점들의 입구에, 호텔들의 입구에 세우고 싶은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요란하게 성탄절 장식을 하고 성탄절을 자기들의 이익추구의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참의미를 바르게 알려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그 속에 과묵히 참 기쁨과 감격이 없이 또 한해의 성탄절을 맞는구나 하는 타성에 젖어 맞는 성탄절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삶속에서 실천하며, "어린 소자 중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겨 모든 사람들과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2004년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Merry Christmas !



성탄축하찬양예배

주께 영광!

이영조 집사(할렐루야찬양대지휘)



John W. Peterson (1921~) 은 현존하는 미국의 교회음악 작곡가로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작곡가입니다. 그의 음악은 아주 쉽고 대중적이면서도 결코 값싸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Kansas 주에서 태어난 그는 2차대전 중 공군 조종사로 전투에 참가하기도 하였으며 후에 Moody Bible Institute의 스태프로 일하였습니다. 시카고의 American Conservatory of Music을 졸업한 후 1,100 곡이 넘는 성곡을 작곡하여 교회음악에 공헌하였습니다. 현재도 Arizona 에 거주하며 고향에도 불구하고 많은 곡을 작곡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러지는 곡은 그의 작품 중 가장 사랑을 받는 곡 중의 하나로 혼성합창, 여성 합창, 남성 합창, 독창과 중창 등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탄절 밤을 위해 작곡과 편곡을 겸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곡 안에는 "거룩한 밤" (O Holy Night) "동방박사 세 사람" 등 우리에게 친숙한 곡들이 들어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이 찬양에 참여함으로 온 누리에 주님의 탄생을 알리길 바랍니다.



성탄찬양축하예배 초청의 글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최희인 장로(교육1국장)



성탄 전야! 우리 서울교회 어린이들이 작은 정성을 하나로 모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합니다.

2000여년 전 그날 목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합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때에 성탄절은 더욱 깊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 절망이 지배하던 역사가 물러가고 사랑과 희망의 새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 깊게 맞이하는 길은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아직 어둠에 사는 이들에게 빛을 전하여 주는 일일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뜻깊은 절기가 되시기를 위하여 성탄 전야에 서울교회에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이 펼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축하 잔치에 초청하오니 오셔서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가장 큰 선물

박정섭 권사(교구)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리스도의 계절!

올 크리스마스에는 저희 가족에게 특별한 감사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낳은 딸 지윤이가 예쁜 딸을 낳은 것입니다. 10여년을 공부 때문에 유럽에 나가있던 지윤이가 어느 날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위가 될 사람은 프랑스인으로, 딸이 잘 알아서 결정했겠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사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영 석연치 않았습다.

시간이 지나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 왔고, 임신 4개월 쯤 되었을 때 또 다시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감사를 해보니 아기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나는 긴급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뱃속의 아기와 그 가정을 위해 구체적인 기도를 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 손가락, 발가락, 머리털 하나까지 온 몸의 어느 것 하나도 상함이 없는 건강한 생명을 주시라고, 더불어 이번 일을 통하여 사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의사가 못 고친다면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어서 고쳐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교직에 몸을 담고 있어 맘대로 시간을 낼 수도 없고, 먼



이국땅에서 감당키 어려운 일을 당한 딸을 생각하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만 하다가 여름방학에 잠깐 짬을 내어 딸을 찾았습니다. 그 곳 교회에 가서 딸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나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해 답답하기만 하고, 췌겨간 이 목사님의 설교테이프를 들으며 매일같이 딸과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은 지난 달에 정상아를 출산 하였고 딸도 건강하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소식을 들은 그날 저는 온종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기가 그 가정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뱃속의 아기까지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딸의 가정이 온전히 복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육군 3사단(백골부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농어촌 100교회 후원현황



이갑진 장로(비전2020 위원장)

지난 11월20일 육군 제23사단 교회에서의 진중세례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12월11일에는 우리교회 성도 64명과 250여명의 육군 제3사단 장병들이 신병교육대 십자군교회에서 진중세례와 성찬 및 자매 결연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이로서 우리교회는 그동안 군 복음화를 위해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육군 23사단과 3사단 두 부대 모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군에서 확장하는 데 진일보 하였습니다.

아침 7시 청명하고 상쾌한 겨울의 아침공기를 뚫고 3사단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제자 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병사들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날 아직 계급장을 달지 못한 132명의 훈련병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군의 계급장을 달기 전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 병사의 계급장을 먼저 단 이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렸고, 군복들과 부대의 교회들은 물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기르실 것입니다.

사단장 박00장군은 장로님으로, 부사단장은 안수집사로 연대장들과 다수의 참모들이 집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니 참으로 복 받은 사단입니다. 예수 잘 믿으니 부대정원에서 1등만 하더라도 사단장의 얘기에는 저의 경험상 수급이 갑니다.

우리교회 이종운 목사님은 41년전 3사단의 한 대대에서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부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군중병이 되었고, 대대의 인격교육까지 맡으면서 맨 주먹으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오늘까지 그곳에 건재하고 있다니, 군대의 속성 상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감탄과 함께, 이는 일찍이 주의 종으로 부름 받은 그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군은 복음전도의 황금 어장입니다. 비전2020 본부는 2005년도에도 후원자의 밤, 육군 사관학교 졸업예배와 세례식 등을 준비하고, 육군에 이어 해공군 및 해병대 부대들로 세례지원의 대상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족복음화의 산실이 되기를 원하는 서울교회의 비전 이 군 복음화라는 아주 특별한 선교를 통하여 그 열매를 맺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번 행사에 함께 참여하신 교역자와 장로님들, 호산나 찬양대 그리고 비전2020 임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남선교회여전도회 회장 부회장 명단

명칭	지도	회장	부회장
빌 림 (30-39) 안드레 (40-44) 베드로 (45-49) 바울 (50-54) 엘리아 (55-59) 모세 (60-64) 아브라함(65이상)	이성득목사 이규경목사 김운호목사 윤영국목사 한상은목사 오정식목사 이용식목사	김영주성도 손영호집사 윤동수집사 김규태집사 손병석집사 이찬호집사 이덕빈집사	이영수집사 홍순석집사 에완식집사 최양진집사 하인선집사 한충렬집사 경빈모집사
도르카 (30-39) 루디아 (40-44) 뵈 뵈 (45-49) 마리아 (50-54) 에스터 (55-59) 한 나 (60-64) 사 라 (65이상)	이성득목사 이규경목사 김운호목사 윤영국목사 한상은목사 오정식목사 이용식목사	김희경집사 이현주집사 박현영집사 주경자권사 이해순권사 이영희권사 이순례권사	나연선집사 이비송집사 김신영집사 김양숙집사 전원순권사 손재경권사 공진분권사

-교회단신-

2005년 순결서약식 접수를 계속하고 있다. 13세 이상의 미혼인 성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무국으로

등정

- 서순회 성도(14교구) '셀 아동발달 특수교육원' 개원 개포5단지 신일빌딩 4층 (3412-4149)
- 이사: 나혜수성도 김순주집사(3교구), 대치4동 902번지 포스코 A, 102/1704 T.573-4104
이기범 집사, 신기숙 권사(13교구) 은마@ 20-506 T.3452-0409
- 등녀: 홍성국 박혜진 성도(5교구)
- 주간·식당 봉사: 바울 남선교회(12.19) 엘리아 남선교회(12.26)
- 금주의 식사: 하영수 장로 박정순권사 가정(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번호	교회명	목회자(목/전)	후원자
1	가호동 교회	김종선 (전)	김광신,이인선
2	계동교회	홍정표 (목)	윤정식
3	고읍교회	노태곤 (전)	새가족부
4	고향교회	김권한 (목)	하인선,남태순
5	국계교회	이만수 (목)	김정애
6	군천리 교회	박복덕 (목)	박찬성,심명숙
7	갈암교회	최효임 (전)	김재근
8	금릉교회	권순태 (전)	김영주,이해순
9	금천선교회	송중운 (목)	진돈,김경희
10	금호교회	김기룡 (전)	최만수
11	순살교회	손삼암 (목)	신항범
12	덕계교회	정용철 (전)	김재중,김유경
13	덕곡교회	백성구 (목)	강승운,서경애
14	동화교회	전영수 (목)	김종자
15	미산동부교회	강신창 (목)	최학인,최소희
16	모실교회	선석기 (목)	박정수,김경옥
17	목포 성안교회	장정구 (목)	주영도,오가연
18	묘두교회	김종환 (전)	정무균
19	반포교회	김희찬 (전)	나미용
20	방주교회	황해연 (전)	노문환,장정화
21	백령도63세대		이갑진
22	벨엘 교회	남은숙 (전)	이영기,이영숙
23	봉기교회	김학경 (전)	12-2다락방
24	부남명성교회	신덕만 (목)	노송성,이영옥
25	빛나는교회	이성우 (목)	주동재,김동진
26	삼산교회	류현근 (목)	이경희,박태규
27	삼척 신광교회	정훈우 (목)	김부려
28	상리교회	천광훈 (전)	홍순복
29	서광 교회	김진은 (목)	노병호,홍지나
30	소생교회	이광우 (목)	전수자
31	양평 교회	이순화 (전)	임상현
32	여천동 교회	정철기 (목)	이종창
33	연브리 교회	정장연 (목)	최광성,이정연
34	연평교회	이식노 (목)	차도훈,남태영
35	오수제일교회	최규문 (전)	오정수
36	우이 서리 교회	김태훈 (전)	고아라,고요한
37	우이도교회	정철기 (전)	정동학,김복순
38	운당제일교회	정양섭 (전)	장두현
39	월전 교회	문경두 (목)	김상태
40	은성 교회	소경의(목)	김상대
41	이인교회	정석관(목)	조정식
42	자내리 교회	장근(목)	이강진,송미령/서중숙
43	장곡교회	윤영석(목)	조정식
44	주 소망교회	오준석(목)	조정식
45	한마음교회	석진(목)	조철기,김영란
46	해암교회	오창식 (목)	홍승선, 황정임

-다음주일에 계속-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KBS(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 강남 케이블 TV CH4-주일 저녁 9시5분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1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 3 기쁘고 감사한 성탄절이 되도록
- 4 국론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외약도 :

